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 및 한국 상하수도 민영화 시사점 연구

이 송 호(University of London)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본 론

1절 이론적 토대 Grid/Group 이론 및 공진화 이론
(Co-Evolution)

2절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 정책: 정부주도 개혁

3절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 주역: 다국적 기업

4절 사례연구: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 프로젝트

5절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의 함의

6절 한국 상하수도 민영화 현황 및 다국적 기업

제 3 장 결 론

참 고 문 헌

제1장 서론

본고의 연구목적은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를 위한 상해시정부의 1990년대 후반부터의 제도, 조직 및 행정개혁 그리고 민영화 과정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다국적기업 및 중국 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분석 및 정부와 기업, 두 주요역할자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고자 함이다. 더불어 상해 민영화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90년대 이후 한국진출 현황과 이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한국 상하수도계의 민영화 과정을 상해민영화 과정과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연구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 진행과정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한국 상하수도 민영화 진행과정을 연구하는 데에는 두가지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필요하다. 이는 Mary Douglas의 Grid/Group이론과 복잡 (Complexity) 이론에서 파생한 공진화 이론 (Co-Evolution)이다. 이를 토대로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 과정에 어떠한 역할자들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러한 주요 역할자들이 민영화를 위해 내부, 외부적 환경요소를 변화시켜가며 궁극적 목표를 이뤄나가느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지난 50여년간 비효율적인 상해시정부의 독점적 상하수도 관리 및 경영은 서비스 부실화를 유발하였고 이에 따른 대안으로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방안이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상해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민영화에 대한 준비는 1990년대 후반 조직을 개편하고 제도를 정비하면서 시작되었고 이는 2000년대 초기 Ondeo, Veolia, Thames Water등의 다국적 수자원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중국내 기업들의 민영화 참여를 유발하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상해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이러한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상해의 상하수도 서비스 민영화는 제도적, 정치적, 사회/문화적인 여러 측면에서 유발된 문제로 인해 최근까지 한계점을 노출하여 왔다.

상하수도 민영화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상해와 한국 모두 높은 성장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해정부 및 한국정부가 앞으로 지금까지의 독점적인 서비스 공급자와 관리자 모두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관리자로의 역할을 제정립하고 다국적기업과 중국, 한국 민간 기업들이 효율적 경영, 선진기법도입 및 적절한 가격 체계를 확립한다면 민영화를 위한 공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는 첫번째로 Grid/Group이론 및 공진화 이론을 소개하고 두번째로는 상해의 상하수도 민영화 정책이 있어서 정부가 어떻게 개혁을 진행하여 초기 민영화 사업들을 이끌어 왔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세번째 부분은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 온 다국적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다.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례연구가

네번째 부분의 연구인데 여기에서는 상해 상하수도 시장의 빠른 발전상황과 그에 발맞춰 진출한 다국적기업과 중국기업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분석할 것이다. 다섯번째는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 가지 한계점에 대해 토론할 것이며 여섯번째로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의 한국 상하수도 민영화 현황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사점을 갖는가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상해 및 한국 상하수도 민영화는 초기단계로 앞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으로 맺음을 할 것이다.

제2장 본 론

1절 이론적 토대

- Grid/Group 이론 및 공진화 이론 (Co-Evolution)

1. Grid/Group이론

Grid/Group이론은 영국의 사회인류학자인 Mary Douglas에 의해 주창된 것이며 문화이론 (Thompson, Ellies 와 Wildavsky, 1990)에서 그 토대를 형성한 이론이다. 이는 어떠한 정치, 사회, 경제적 현상속에 그 현상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네가지 역할자들을 제시하여 어떻게 서로 다른 역할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Fardon 1999).¹ 이를 바탕으로 하여 Grid/Group 이론은 네가지 대표적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the Hierarchists, the Egalitarians, the Entrepreneurs, 그리고 the Fatalists이다.

Grid/Group이론에서의 네가지 삶의 방식과 관련 상해 사례에 있어 적용한다면 상해시정부 (the Hierarchists), 환경NGO (the Egalitarians), 민간기업 (다국적기업, 중국기업 - the Entrepreneurs), 그리고 일반 상해시민들 (the Fatalists)을 들 수 있겠다. 한국 사례 역시 한국정부의 관련부서 및 단체, 환경NGO, 민간기업 (다국적, 한국기업), 그리고 일반 한국 국민들로 적용할 수 있다. Grid/Group이론은 본고에서 기본이 되는 분석틀로서 어떠한 주요 역할자들이 민영화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민영화의 구체적 성과달성을 위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그럼 1은 Grid/Group이론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¹ 여기에서 grid은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고 group은 사회의 각종 단체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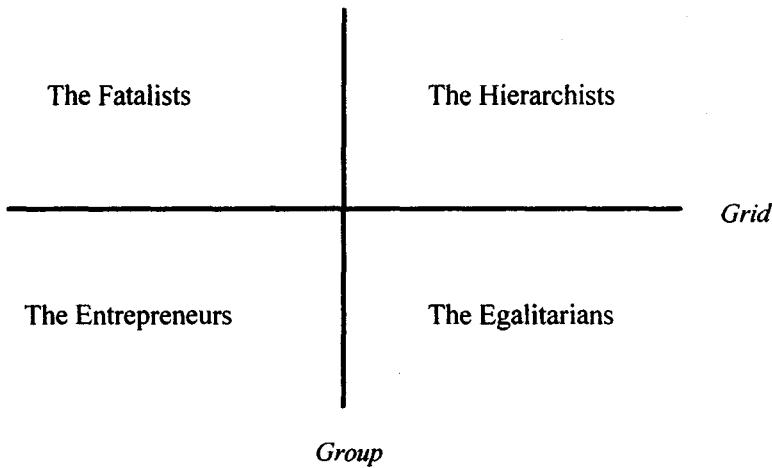


그림 1. Grid/Group이론 - 네가지 대표적 삶의 방식 (Thompson 1988)

2. 공진화 이론 (Co-Evolution)

공진화이론은 조직이론 (Organisation Theory)에서 연유하여 생물학의 진화이론과 연결되어 발전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이론이다. 이는 또한 복잡이론 (Complexity Theory)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있는데 복잡체계 속에서 수많은 역할자들이 공통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각의 다른 전략과 전술을 이용하여 오랜 시간동안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거치면서 충돌과 분열이 아닌 공진화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사회현상을 분석하는데 이 이론의 중요성이 있다 (Anderson 1999).

그림 2는 공진화 이론을 시각화 시킨 것으로 능선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표면이 융기하기까지 지층내부에서 수많은 내부적 에너지가 상호 작용하여 솟아오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 과정에서 상해시정부, 민간기업, 환경NGO, 국제기구(World Bank, ADB등)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며 공진화하는지를 또한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 상하수도 민영화 사례에서도 한국정부의 수자원정책관련 부서들과 다국적기업, 관련 한국 기업들간의 상호작용이 공진화하는 과정을 이 이론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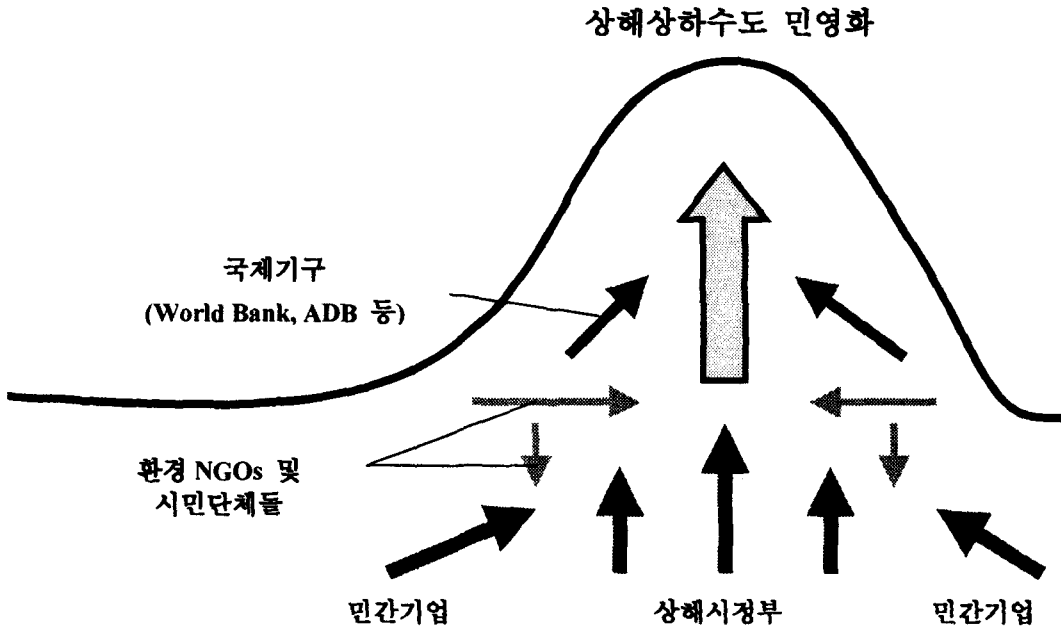


그림 2. 능선 형성과정을 통해 본 공진화 이론 및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 사례

2절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 정책: 정부주도 개혁

1. 상해 상하수도 서비스의 부실화

상해 상하수도 서비스의 부실화의 원인은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 그리고 상해 자체적으로 본격적 사회경제적 발전이 시작된 1990년 초반부터 진행된 발전의 물결속에서도 상하수도 분야를 포함하는 공공서비스 분야는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황포강, 수조하등을 비롯한 상해의 주요 지표수들은 심하게 오염되었고 낙후된 설비로 인한 누수손실, 60%에도 못 미치는 하수처리시설 운용효율등이 상하수도 서비스 부실화와 그에 따른 사회와 각 산업 전반의 불만을 야기하게 되었다. 50여년간 지속된 상해시정부의 상하수도 서비스 독점운영, 관리는 급기야는 1990년대말까지 1억달러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는 정부차원에서의 개혁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人民日报 2002년 5월23일).

2 상해시정부의 상하수도 서비스 개혁 및 민영화 개혁 배경

상수도 분야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시중심부의 상수도 공급을 책임졌던 10개의 물공급회사를 4개로 줄였는데 이는 현재 각각 시북부, 시남부, 푸둥지구 및 민항지구를 책임지는 물공급회사이다.² 또한 이들의 효과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해 물공급과 관련하여 여러 정부부처를 통합한 수자원종합관리부서인 수무국(水务局)을 개설하여 물공급의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경영 및 관리를 추구하였다. 또한 상기한 네개의 상해 시중심 물공급을 책임지는 회사의 자산관리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上海水务资产经营 发展有限公司를 설립하였다.

상해시정부의 이러한 개혁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투자확대였다. 시정부 자체의 자금만으로는 높아져가는 상하수도 서비스의 신규설비 건설 및 증설, 관리등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민간자본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여기에 상응하여 중국, 특히 상해 물시장의 높은 성장가능성을 인지하는 다국적 수자원회사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상해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또한 선진경영 기법 및 기술도입의 청신호를 가져오게 되었다.

3절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 주역: 다국적 기업

상해시정부의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과 시 자체 상하수도 서비스에 관한 제도, 행정개혁은 상해 물시장의 높은 성장잠재력을 한층 높이게 되었다. 중국물시장 전체의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보고 90년대이후 본격적 중국진출을 했던 다국적 회사들은 상해정부의 적극적 개혁정책에 응하여 상해로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물시장 발전가능성에 대해 중국과학원은 앞으로 50년간 중국의 일반가정 및 산업현장의 물수요는 60%이상 증가하여 8천억 m³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Business China, 2002년 2월18일). 또한 이러한 성장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데이터는 지난 9차 5개년 경제개발기간 (1996-2000)동안 중국정부는 상하수도 부문에 250억달러에 이르는 큰 규모의 투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Horton 2000).

이러한 상하수도 업계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 속에서 다국적 수자원회사, Ondeo, Veolia, 및 Thames Water 등은 중국 전역에서 자신들의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가장 오랜기간 중국시장에서 활동한 회사는 Ondeo로서 1970년대 중반 중국에 진출한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17개의 합작법인을 만들었고 1천3백만 이상의 중국인에게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Veolia는 成都 상수도 BOT 프로젝트등을 통하여 중국시장에서 그 영역을

² 각회사의 이름은 上海市自来水市北有限公司, 上海市自来水市南有限公司, 上海市自来水浦口有限公司, 上海市自来水闵行有限公司이다.

점점 확대하고 있고 Thames Water는 90년대 중반 상해시 大场 BOT 수처리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에 진출하여 왔다 (Owen 2002).

4절 사례연구: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 프로젝트

1. 상해 상하수도 시장 현황

상해 상하수도 시장은 1990년대 초반이후 경제발전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사회전체적으로 상하수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그로 인한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이에 발맞추기 위해 상해시정부는 2002년 상하수도 관련 투자에 9억달러 이상을 쏟아부었고 10차 경제개발계획기간 (2001-2005)동안 50억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상하수도 부문에 투자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 (中国环境报 2002년 7월10일).

2. 다국적 기업 주요 프로젝트

가. Ondeo

Ondeo는 프랑스 다국적기업으로서 1970년대중반부터 중국 각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왔으나 상해진출은 2000년대 초반에 비교적 늦게 이뤄졌다. 비교적 짧은 시장 진출 기간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여러 개의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였는데 그 예가 2001년 上海星火工业开发区 수도공급서비스 계약 (합작법인), 2002년 같은 곳에 산업폐수처리 서비스 (합작법인), 그리고 2002년에는 南市, 杨树浦 기존 음용수처리 플랜트를 재건축하는 계약에 성공하였다.

나. Veolia

Veolia 역시 프랑스 다국적 기업으로 경쟁사인 Ondeo에 비하면 중국진출이 늦었고 성과가 그리 많지 않으나 2002년 푸둥지구 물공급회사 (上海市自来水浦东有限公司)의 50% 지분을 획득하여 상수도 공급을 위한 처리부터 분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졌으며 상해라는 큰 성장잠재력을 가진 물시장에서 더 큰 사업확장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민간기업이 수도의 최종 소비자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경영권을 상해시정부로부터 받음으로써 민영화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Thames Water

Thames Water는 1995년 大场에 BOT방식으로 수처리 플랜트를 수주한 것으로 상해 시장에 진출하였다. 시기적으로 일찍 진출하였지만 다른 프랑스 기업처럼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최근에 상해시 북쪽 물공급 회사 (上海市自来水市北有限公司)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에 2003년 참여, 상해 수자원오염도를 연구하는 부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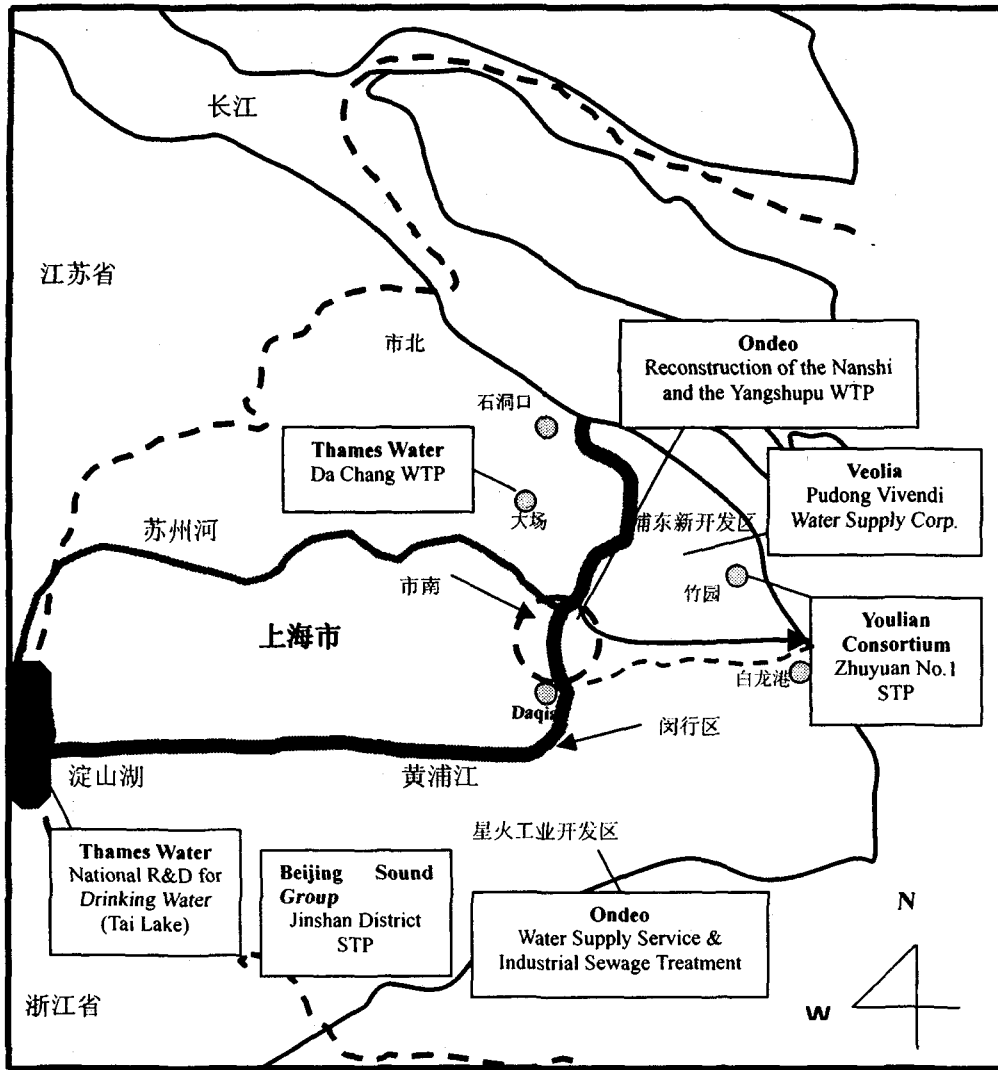
라. 중국기업

위에 언급한 다국적 기업에 비해 중국의 민간기업의 활약도는 미미한 편이다.³ 그러나 최근 상해물시장에서 두 중국기업의 활약상이 두드러진다. 그 첫번째는 Youlian Consortium으로 투자회사 및 엔지니어링 회사등 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2년 竹园 BOT 하수처리 플랜트를 수주하였다. Beijing Sound Group은 2001년 중국전역 11개 도시 하수처리 플랜트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상해의 金山区에 하수처리 플랜트를 건설하는 계약이다. 표 1과 그림 3은 위에서 언급한 다국적기업 및 중국기업의 프로젝트를 요약한 것이다.

³ 민간기업이라고 하나 이들은 사실상 국영기업으로 개혁개방정책이후 이름을 바꾸고 각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표 1. 상해 민영화 프로젝트 요약 (1995-2003)

Name	PJT Name	Contract Type	Cost (US\$ Mil)	Concession Period	Capacity (m ³ /d)	Partner/ Client
<i>Ondeo</i>	Pudong Spark Industrial Zone Water Supply Services	Joint Venture	N/A	30 years from 2001	N/A	Shanghai Government
	Pudong Spark Industrial Zone Industrial Sewage Treatment	Joint Venture	54	50 years from 2002	50,000	Shanghai Chemical Industrial Park
	Reconstruction of the Nanshi and the Yangshupu Water Treatment Plants	Reconstruct	31	2002 -	860,000 (combined capacity)	Shanghai Shinan and Shibe Water Supply Company
<i>Veolia</i>	Shanghai Pudong Vivendi Water Supply Corporation	Purchase of a 50% equity	311	50 years from 2002	N/A	Shanghai Pudong Water Supply Corporation
<i>Thames Water</i>	Da Chang Water Treatment	BOT	78	20 years from 1996	400,000 (peak 520,000)	Shanghai Waterworks Company
	National Research & Development (Drinking Water)	Technical Advice (Consortium)	9	2003 -	N/A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i>Youlian Consortium</i>	Zhuyuan No.1 Sewage Treatment Plant	BOT	110	20 years from 2002	1.7 million	Shanghai Government
<i>Beijing Sound Group</i>	Shanghai Jinshan Sewage Treatment Plant	BOT	N/A	25 years from 2002	1.7 million	Shanghai Government



비고: WTP: Water Treatment Plant
STP: Sewage Treatment Plant

그림 3.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 프로젝트 분포도 (1995-2003)

5절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의 함의

비록 1990년대 후반이후 상해시정부의 개혁의지 및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로 빠른 속도로 상하수도 부문 민영화가 이뤄졌으나 앞으로 민영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1. 문화, 사회적 걸림돌

민영화 발전에 있어 정치, 경제, 사회 방면에서 세가지 큰 걸림돌이 있는데 첫번째 것이 물이 경제재라는 인식이 크게 부족한 점이다. 2002년 상해에서 필드워크를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동안 머물 당시 필자가 임대했던 원룸의 한달 수도 사용료는 인민폐 16원으로 달러로 환산하면 2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 4명, 5명의 식구가 사는 이웃집의 경우도 똑 같은 수도료가 나온다는 것을 보고 쓰는 양에 비례한 수도료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 m³당 부과하는 상해시의 현재 인민폐 1원 (약 0.13 달러 - 1달러는 인민폐 8.28원)의 낮은 수도세는 민영화에 있어 민간기업이 이익창출 및 보전을 확보해 줄 수 없는 제도상의 난점으로 부각되어 있다.

2. 정치상황의 불확실성

일반적으로 상하수도 프로젝트 계약을 시정부와 체결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20년에서 길게는 50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인데 이 기간동안 정치상황이 불안하다면 민간기업은 안심하고 장기투자를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지난 50여년간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과 같은 국가전반을 불안하게 오는 사태가 온다면 투자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고 이에 대한 민간기업의 상하수도 민영화 참여가 위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현 상해가 안정된 정치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국적 기업에서는 여전히 Government Support Letter같은 비공식적 확인서를 고위 정부기관을 통해 받아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 (Turner III 과 Seem 1999).

3. 행정, 법률, 제도의 부재 또는 미비

상하수도 민영화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혹은 상해시정부 차원에서 아직 관련 제도나 법규가 미비된 상태이다. 최근 몇 년간 아직 제도화, 법률화 되어 있지않은 민영화 과정 속에서 비록 BOT방식이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으나 BOT에 관한 법률이 아직 만들어 지지 않아 이 역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합작법인 설립 경우에는 건마다의 정형화되지 않은 길고 지루한 협상이 이어지므로 다국적 기업으로는 미래의 높은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진행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또한 법이 있어도 일관된 법적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중국현실에서 사업진행에 있어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결이 법에 의하여 부드럽게 처리되지 못하는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다 (Blackman 2001).

6절 한국 상하수도 민영화 현황 및 다국적 기업

지금까지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 과정에 있어서 상해시정부가 어떻게 내부 개혁을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민간기업이 어떤 식으로 민영화 과정에 기여하였는지를 살펴 보았는데 여기서는 이와 비교하여 한국의 상하수도 민영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민영화 추진원인 및 발전

한국의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은 상해시와 비슷하게 낙후된 상하수도 관련설비의 교체와 시설의 Upgrade를 위한 재투자를 목적으로 1990년 후반부터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상하수도 민영화의 두가지 특징은 현재까지 경기도에 민영화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상수도보다는 하수도분야에 민영화 과정이 더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경기도에 집중된 원인은 다른 지방에 비해 도 정부가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수도권지역의 높은 생활수준과 수요 성장가능성을 간과한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 참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수도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는 이유는 환경부, 지방정부 및 환경시설관리공단이 함께 상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낙후된 하수도 시설 재투자 및 Upgrade를 위해 활발한 민간자본 유치를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하여 왔기 때문이다.

2. 하수도 분야 - 민영화 주도

이러한 정부차원에서 하수도 분야에 대한 적극적 개혁의지 덕분에 상해에서 활약중인 두 프랑스 다국적 기업들이 경기도에 1990년대 후반부터 진출해 있다 (Frost & Sullivan 2002년 4월). 첫번째로 Ondeo는 2002년초 경기도 양주에 BOT방식으로 3개의 하수처리 플랜트 건설 및 경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앞으로 24년간 7천1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하루 75,000 m³ 처리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여기에는 한화가 협력업체로 함께 참여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또한 Veolia는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02년 5월 인천 송도, 만수에 2개의 하수처리 시설 플랜트 건설, 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삼성엔지니어링과 함께 참여하였으며 하루 150,000 m³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현대건설과 함께 2002년 경북 칠곡군 소재 현존하는 2개의 하수처리플랜트를 위탁경영하고 한 개의 새로운 플랜트를 건설하기로 칠곡군청과 계약을 맺었다 (Global Water

Intelligence, 2002년 2월).

3. 한국 상하수도 민영화 전망

이러한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한국의 상하수도 민영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현재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정부와 민간기업과 공진화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물은 경제제라는 인식과 함께 합리적인 물의 소비 및 효과적 수도요금체계가 필요하겠고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 속에 일관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 특히 자본력이 있는 다국적기업의 진출을 유도하여 선진경영기법, 첨단기술 등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법률, 제도적 장치의 마련 역시 시급히 정부쪽에서 해결할 문제로 이는 민간기업의 활발한 투자 및 안정적 경영, 이익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의 민영화 사업부문이 하수도 분야에 집중된 것이 한국 상하수도 민영화의 특징인데 이익 실현에 있어서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이 가능한 상수도 분야의 민영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하수도 분야의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분야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상수도 분야의 민간기업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3장 결 론

지금까지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과정을 중심으로 어떻게 정부와 민간기업이 민영화라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진화가를 분석하고 논의 하였다. 또한 상해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 상하수도 민영화 과정은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은 Grid/Group이론과 공진화 이론 (Co-Evolution)두 가지가 쓰였다. Grid/Group이론은 상해와 한국 상하수도 민영화과정에서 정부와 민간기업이라는 주요 역할자들을 규정지었고 공진화이론은 이 두 역할자가 민영화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 조율과 협력을 하는지 분석할 수 있었다.

상해시정부는 경쟁없는 독과점체제로 인해 지난 수십년간 상하수도 서비스의 부실화를 유발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투자확대와 기술도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민영화를 진행시켰다. Ondeo, Veolia, Thames Water등 다국적 수자원기업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속적인 공진화 과정을 통해 현재의 빠른 민영화 과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 정부, 기업간 두 역할자간의 긴밀한 관계는 한국 상하수도 민영화과정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하수도분야의 민영화 발전에는 Ondeo, Veolia가 다른 한국민간기업과 함께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다.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과정에 있어서 나타난 시사점은 어떻게 상해시정부가 현재까지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위치에서 서비스 관리자로서 자신의 위상을 재정립하느냐에 있다. 또한 민영화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는 다국적 기업 역시 효율적 경영, 선진기법도입 및 적절한 가격체계 확립을 통해 상해시에 알맞은 민영화 모델 형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들의 공진화적 발전 및 협력은 문화,사회적, 정치적, 제도상에 나타난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 민영화 과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이끌어 나가는데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 과정과 비교하여 분석한 한국 상하수도 민영화 분석 역시 정치, 행정, 사회, 문화적인 걸림돌을 극복하여 정부와 민간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이 얼마나 긴밀히 협력하여 앞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민영화 모델을 발전시키느냐에 있다. 이는 상해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서비스 관리자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민간기업은 효율적 경영, 선진기술 도입 및 합리적인 가격책정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도록 노력해야 한국적 민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Anderson, P (1999). 'Complexity Theory and Organisation Science', *Organisation Science*. Vol.10., No.3, May-June 1999.

Blackman, Carolyn (2001). 'Local Government and Foreign Business'. *China Business Review*, May/June 2001, Vol.28, Issue 4.

Fardon, Richard (1999). *Mary Douglas*. London:Routledge, p210

'French Firm Enters Chinese Drinking Water Market', 23 May 2002, *China Daily*. Available Online: <http://www1.chinadaily.com.cn/news/2002-05-23/70831.html>

Global Water Intelligence, February 2002.

Horton, Paul (2000). 'For All the Water in China', *Water & Environment International*. March 2000, Vol9, Issue 66.

Owen, David (2002). *Masons Water Year Book 2002-2003*. London: Masons Solicitors.

'Shanghai Shuiwu Shichang de Qishi (Opening of the Shanghai Water Market)', 10 June 2002, *Zhongguo Huangjing Bao (China Environment News)*. Available Online: <http://www.cenews.com.cn/news/2002-06-10/17080.php>

Shanghai Water Authority Website
<http://www.shanghaiwater.gov.cn/default.jsp>

'South Korea: Privatisation and OECD Commitments Drive Water Sector', 25 April 2002, *Frost & Sullivan*. Available Online: <http://www.frost.com>

Thompson, Michael (1988). 'Socially Viable Ideas of Nature: A Cultural Hypothesis', in Braak, E. and Sevdin U., *Man, Nature and Technology*. Basingstoke:Macmillan.

Turner III, Edward L. and Seem, Alan D (1999). 'The New Project Finance – Legal Solutions, Legal Strategies', in Beena Sorab and Benedict Rogers. *Project Finance Models for Greater China*. Hong Kong:

Asia Law & Practice.

Water Guzzlers', 18 February 2002, *Business China*,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